

# 청렴,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

뉴스제주 | 승인 2025.04.25 15:13

## 제주시 체육진흥과 행정7급 전성현

가까이 있는 듯,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그것. 청렴이란 참 묘한 가치입니다. 마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바람과도 같아서, 마음을 다잡고 다가서면 그만큼 멀어지기도 합니다.

청렴(淸廉)은 '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없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사사로움이 없는 상태'를 의미합니다.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, 그 실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.

때로는 청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. 거짓 없이, 정직하게, 원칙대로 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 하면, 이 단순한 원칙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게 됩니다.

우리 사회는 청렴을 수없이 외칩니다. 그러나 그 말의 무게를 진심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? 청렴은 단지 부패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마음 한 톨의 탐욕을 다스리고,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, 누군가 보지 않아도 바른길을 걷는 것, 그것이 진정한 청렴입니다.

청렴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이며, 사회 전체의 신뢰를 쌓는 토대입니다. 누군가는 말합니다. '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.'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될 때, 우리는 어느새 청렴과는 멀어진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.

진정한 청렴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, 자기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자발적 선택이어야 합니다. 바람처럼 자유롭고 투명하고 소중한 그 가치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.

그리고 그 길은 결코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.

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입니다.



▲ 제주시 체육  
진흥과 행정7  
급 전성현.

오늘도 청렴을 다짐합니다. 바람처럼 잡히지 않아도, 끝내 그 바람을 닮고자 애쓰는 우리의 하루하루가, 결국 청렴한 사회를 향한 단단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



뉴스제주 news@newsjeju.net

---

저작권자 ©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